

<제6회 CNU 리드미 Readme 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대상)>

도서명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저자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제목	말 한마디로 천 냥 협상 성공한다
당신은 ‘협상’에 대해 알고 있는가? 많은 이들은 협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협상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보라. 흔히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둘러앉아 각자의 이익을 위해 대화하는 장면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한 회사의 영업 이익과 같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오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것이 협상이 맞느냐 물어본다면, 당연히 정답은 ‘예’이다.	
<p>하지만,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협상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책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는 협상을 상대방이 특정한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 정의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음식값을 깎는다거나 아이들이 밤에 꼬박꼬박 이를 닦게 만든다거나 하는 모든 일상적인 활동들 또한 협상이라는 것이다. 크리스틴의 말을 빌려보자면, 우리는 협상 없는 삶에 살지 않는다. 오직 협상을 잘하거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뿐이다.</p> <p>그렇다면 협상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그 답은 모두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에 들어있다. 협상을 잘하려면 우선 우리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우리는 협상을 할 때 이익에 초점을 두고, 이에 맞춰서 어떤 제안을 할지 고민한다. 그러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감이나 신뢰와 같은 인간적인 요소가 합의를 이끌어 낸 경우가 50% 이상이었다. 그렇다면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협상 내용이 협상을 성공하게 한 사례는 겨우 8%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가 협상할 때 내용보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p> <p>사람에게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유의 사항에 대해 생각해보자. 협상 상대가 여러 명일 때도 우리는 각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들을 한 단체나 집단으로 묶어서 취급하지 말고,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고유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테면 중국인과 협상하는 법, 변호사와 협상하는 법 등 집단을 대하는 방법은 모두 엉터리라는 뜻이다. 우리가 상대하는 인물은 14억에 달하는 중국인 중 고작 한두 명이다. 같은 국가에 속해 있더라도 모두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기분과 상황을 파악해보자.</p> <p>상대방의 기분과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려면 ‘인식’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하나의 사물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받아들이고는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p>	

나 자신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이의 관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애초에 다른 관점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책의 사례에 따르면, 미국 레스토랑에서는 커피를 더 마시고 싶을 때 잔을 흔들면 알아서 채워주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같은 행동을 하면 웨이터가 와서 잔을 치운다고 한다. 이때 미국의 웨이터와 사우디의 웨이터는 모두 자신이 손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인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대방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도 실천하기 어렵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대체 어떻게 상대방의 인식을 알 수 있습니까? 정답은 바로 ‘역할 전환’에 있다. 나는 어떻게 인식하는가? 상대방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상대방과 나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책 속에서 던져준 위 질문들을 끊임없이 머릿속에 상기하고, 상대방에게 질문하면 된다. 실제로 역할 전환이 나에게 도움을 준 사례가 있다.

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와서 선물을 사야 하는데, 어떤 선물을 제안해도 어머니가 시큰둥하셔서 고민인 적이 있었다. 평소 가지고 싶어 했던 물건조차도 싫다고 하셔서 대체 뭐가 문제인지 답답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식의 차이가 있던 것이다. 나는 선물을 당연히 물질적인 것으로 인식했지만, 어머니는 같이 식사를 하는 등 ‘행동’ 또한 선물로 생각하셨다.

사실 당시의 나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잣아서 가족에게 소홀했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생신 때 내가 온종일 가족과 있기를 원하셨고, 나는 그를 파악해 굳이 용돈을 털어 비싼 선물을 사지 않아도 어머니를 만족시켜드렸다. 상대방이 하는 말 뒤에 숨겨진 저의를 파악해보자.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해도 좋다. 나와 그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 자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마음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 책은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다양한 스킬을 제안한다. 그리고 스킬 모두를 궤뚫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 바로 공감이다. 모든 스킬은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먼저 소통하고 나중에 제안하라. 아마 모든 스킬에 등장하느라 책 속에서 가장 바쁜 문장일 것이다. 책을 읽기 전, 내가 생각했던 협상과 정반대의 문장이기도 하다. 내가 본 협상은 주로 영화나 드라마에 있었다. 먼저 자신에게 이득이 가는 조건을 요구하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으면 책상을 쾅! 치고 바깥에 나가서 담배를 태우는 장면들이 주를 이루었다.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도 대개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실제로도 전문가들 또한 이를 파워풀한 ‘협상 전략’이라고 소개할 때도 있다.

하지만 스튜어트는 상대방에게 먼저 양보를 요구하고, 잘 통하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행동을 극구 반대했다. 상대방의 반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역효과가 나기 쉽고, 아무런 신뢰가 없는 협상 초반에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 의견에 나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평소 영화를 볼 때도 대화를 통한다면 잘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자리를 박차고 상대방을 위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전문 지식이 없기에 전문가들만의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넘겨짚었던 부분을 책에서 정확히 짚어주니 속이 뻥 뚫리기도 했다.

책에서는 공감을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전문 용어로 ‘감정적 지불(Emotional Payment)’이라고 표현한다. 특히 나는 지불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쏙 들었다. 공감은 일방적인 노동과 희생이 아니라, 상대방의 호의와 같이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으니 자그마한 감정을 기꺼이 ‘지불’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집 바깥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단이라고 생각한다. 책에서는 말한다. 인간적 소통은 공격적 태도가 만연한 세상에서 돈을 대신하는 가치를 지닌다고. 그러니 주위를 둘러보고 시간과 에너지가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한 많은 대화를 나누라고. 그렇게 한다면 평생에 걸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대화가 적기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미워하고 있다. 굵직한 대화가 아니어도 좋다. 날씨를 묻는 정도의 가벼운 안부 인사조차도 수십 또는 수백억 원 상당의 거래에도 도움이 된다. 하물며 우리의 일상은 어떻겠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내 감정을 기꺼이 지불하자. 우리의 수많은 협상이 성사될 것이고, 우리의 일상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제6회 CNU 리드미 Readme 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최우수상)>

도서명	동물농장
저자	조지 오웰
제목	반란을 기억하라

대전 동구의 골령골에는 약 1000여 구가 넘는 민간인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었다. 이들이 학살되어 묻힌 것은 《동물농장》이 세상에 나온 뒤로부터 멀지 않은, 1950년의 일이다. 최근 들어서야 그들의 유해를 수습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광역시만의 일은 아니다. 충남 아산시, 경남 진주시 등 많은 지역이 이와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아픔은 너무 쉽게 옛일이 되어버린 것 같다.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땅 밑에 있고, 후손들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왜 이런 죽음이 있어야 했는지, 왜 이제야 수습하는 건지,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조차.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잊고,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는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데, 우리의 과거는 몇 백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있는 걸까?

나폴레옹과 그의 독재는 어디에나 있다. 나폴레옹 같은 인간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동물농장》이 고전으로 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이유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기 때문일 거다. 나는 이번에 골령골 유해 발굴 작업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나자 비로소 《동물농장》에서 조연으로 치부되는 동물들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가기만 하는, 조명되지 않은 채 사건을 경험했던 동물들이 말이다.

암탉들은 희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막상 달걀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한다. 뒤늦게 나폴레옹에게 반항하지만, 보복 조치로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고 아사한다. 복서는 “나폴레옹 동무는 옳다.”라고 말하며 누구보다 가장 깊게 나폴레옹을 신뢰하였으며, 동물농장의 풍차를 만들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 일한다. 그러나 다친 후에는 나폴레옹의 명령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그 순간에서야 살아남기 위해 최후의 발버둥을 치다가 죽는다. 이는 존스가 돌아오는 꿀이 보기 싫어서 나폴레옹의 독재를 막지 않았기에 내야 했던 천문학적인 사회비용이다. 또한, ‘나는 아니겠지?’라는 민중의 안일한 생각이 낳은 대가였다.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을 때 비판 없이 모든 것을 조용히 수용하기만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다른 동물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더라면, 혹은 그들의 식량을 몰래 나누어주었더라면 암탉들은 아사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복서의 죽음이 정말 안락한 침대 위였는지 스컬러에게 질문하고, 사실을 확인했더라면 나폴레옹의 독재가 굳건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해가 흘렀다. 봉기 전의 옛날을 기억하는 동물은 아무도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그들은 늙은 수퇘지 메이저를 모른다. 메이저 영감이 연설한 뒤 불렀던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가 반란을 이끌어냈다는 사실도, 스노볼이 칠 계명을 적던 순간도, 그 7계명의 내용도 모른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기득권층인 돼지들이 입맛대로 수정한 “어떤 동물들은 더욱 평등하다.”는 구호뿐이다.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가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욱 좋다.”로 바뀌는 것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건 당연한 순례다.

그렇다면 나폴레옹이 절대악인가? 하는 물음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곁으로 보기에 그는 단순히 무력을 행사하여 동물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스노볼 못지않은 지략가이며, 메이저 못지않은 선동가이다. 글을 쓰고 읽을 줄 알며, 때로는 적과의 협상을 통해 실리를 취하는 방법까지 안다. 나폴레옹은 돼지에게는 인간만큼이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지도자이다. 비록 자신의 의견에 찬동하지 않는 동물들에게는 잔혹하지만, 자신의 명령에 굴복하는 존재들에게는 다소 너그러운 면모를 갖추고 있다. 풍차라는 공공의 목표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존스와 스노볼이라는 공공의 적을 통해 내부의 불만을 해소하며, 그 나름대로 동물농장을 꾸려가고 있다.

나폴레옹 대신에 스노볼이 있었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부의 지도자만 바뀔 뿐, 결국에는 평등 위의 불평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구성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폴레옹 하나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다. 나폴레옹의 동물농장이 여기까지 굴러올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말했던 희생양과 그 외 동물들의 묵인이 있었던 덕분이다. 그렇기에 나폴레옹이 그저 나쁘기만 한, 나폴레옹만이 나쁜 동물로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

대선이나 총선이 다가오면 어디에서인가 뛰쳐나오는 목소리가 있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해야 해.” 누군가는 이번만이라도 최선을 선택하자고 하고, 또 누군가는 최악이 될 바에 차악을 택하는 게 낫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동물농장》에 나오는 “존스가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는 않겠지요?”라는 말과 같게 느껴진다. 책에서 동물들은 존스가 나폴레옹보다 싫었기에 그의 독재를 막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돼지가 사람인지 사람이 돼지인지 도무지分辨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아직 선택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 《동물농장》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 정반대의, 새로운 선택을 해볼 것인지 말이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권리를, 절대적인 수가 적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그리고 나 자신의 권리를 위한 책임이다. 그리고 동시에 후대에 역사를 물려주어야 한다. 과거가 잊히지 않고 기억되어 똑같은 일이 되풀

이되지 않도록 말이다. 반란의 노래를 가르치고, 암탉들의 반항을 전해주고, 복서의 죽음에 대한 소문을 말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다면, 혹은 나폴레옹과 같은 지도자에게 대립하는 의견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제6회 CNU 리드미 Readme Lead 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우수상)>

도서명	동물농장
저자	조지 오웰
제목	위선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권력을 경계하라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기존의 권력자를 몰아냈다고 하더라도, '권력'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생기는 것 자체는 불가피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이 어떤 지도자에게 주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느냐는 것이다.

동물농장에서의 권력은 처음에는 농장주인 존스에게 있었다. 하지만 존스의 가혹한 착취에 견디다 못한 동물들은 다소 우발적인 계기로 혁명을 일으켜 존스를 몰아내고 권력을 빼앗는다. 대다수의 동물은 농장을 이끌어 갈 만큼 똑똑하지 못했기에, 동물들 가운데 제일 똑똑한 돼지들에게 농장을 이끌어갈 권력을 위임한다. 돼지들은 우유를 빼돌리고, 이상한 핑계를 대며 사과를 독차지하는 등 미심쩍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동물농장 안의 일들은 집회를 열어서 의논하고 자발적으로 협동하여 일한다. 위태롭긴 하지만 일단 형식상으로나마 민주주의 체제가 완성된 것이다. 농장을 이끌던 돼지들은 똑똑했지만, 원래 똑똑한 자가 나쁜 생각을 하면 더 피해가 막심한 법이다. 돼지들 가운데 절대 권력을 꿈꾸던 '나폴레옹'은 때가 되자 자신이 길들였던 개 무리를 이용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자신과 사사건건 대립하던 돼지인 스노볼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는다.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전까지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집회는 오직 나폴레옹을 찬양하고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자리가 됨으로써 유명무실하게 변해버리고 나폴레옹에게 반대하는 동물들은 인간이나 스노볼의 첨자라는 명분으로 피의 숙청 대상이 된다. 존스의 통치보다 더 잔인한 독재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적어도 존스는 동물을 마구 숙청하지는 않았다. 나폴레옹을 포함한 돼지들은 한때 적이었던 인간들과 협력하고, 인간들의 옷을 입고, 동물들의 노동을 감독할 때 인간들처럼 두 발로 걸으며 채찍을 들고, 술을 마음껏 펴마시면서 도박을 하며 인간들처럼 노는 등 나폴레옹의 통치는 결국 더 가관으로 흘러간다. 결국, 동물들은 존스와 인간들에게 대항했던 초기의 명분인 동물주의는 온데간데없고 나폴레옹의 노예 신세가 되어 존스 때보다 더 모순으로 가득 찬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게 된다.

존스를 비롯한 인간들에게 함께 대항하고 농장을 이끌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태던 돼지들도 결국은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잔인한 통치를 일삼는 특권층이 되어버린 것처럼 독재자를 몰아낸 영웅적 세력이 자국민들을 탄압하는 독재 세력으로 변질되는 것은 역사 속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은 서구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낸 영웅이 잔혹한 통치를 일삼는 독재자가 되어 여태까지도 집권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심지어 그 독재자에게 지배받는 국민은 제국주의 세력의 통치 시절보다 더 열악한 삶을 살기도 한다. 이 소설의 전개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오직 독재자의 힘으로만 가능했을까? 이 소설은 독재자만을 비판하지 않는다. 독재자는 어느 날 갑자기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 대중의 지지와 방관에 힘을 얻어 탄생한다. 동물들 또한 돼지들이 독재 세력이 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돼지들이 인간의 전유물이던 우유를 빼돌리고 집과 사과를 독점했을 때, 동물들은 거기에서 돼지들의 위선을 발견하고 해명을 요구하며 비판하고 저항해야 했다. 하지만 동물들은 저항하기는커녕 돼지들의 궤변을 듣고는 그럴 수도 있다며 이해했다. 이뿐만 아니라 나폴레옹이 숨겨둔 개들을 동원해 경쟁자를 숙청하고는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동물들은 맞서 싸울 수 있었다. 존스와 인간들을 몰아냈던 것처럼 제2의 존스가 된 나폴레옹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맞서 싸울지, 아니면 순순히 복종할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때 동물들은 끝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다. 나폴레옹은 사나운 개들을 친위대로 삼고 있었지만, 말인 복서는 순식간에 개 두 마리를 제압할 정도로 힘이 강했다. 나머지 동물들도 농장들을 되찾기 위해 두 번씩이나 쳐들어온 인간들과 맞서 싸워서 2번 전부 성공적으로 몰아낼 정도로 어느 정도의 전투력이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했다. 하지만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나폴레옹에게 순순히 복종했다. 인간과 스노볼이라는 공공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결국, 그 잘못된 선택의 대가로, 자신의 강한 힘을 나폴레옹에게 저항할 때 사용하는 대신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고 외치며 나폴레옹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데 사용했던 복서는 과한 노동 끝에 골병이 들었을 때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기는커녕 도살장에 팔려가 비참하게 토사구팽당한다. 나머지 동물들도 나폴레옹의 심기를 거스른 몇몇 동물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공포 정치를 수시로 겪으며, 돼지들이 혁명의 이유이자 공공의 적이었던 인간들과 뻔뻔스럽게 술을 펴마시며 마지막 위선마저 벗어던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외적이나 악랄한 왕정처럼 처음부터 차취를 일삼으며 잔혹하게 다가오는 권력은 누구나 그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반발하고 맞서 싸우게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한 영웅이나 악랄한 왕정을 뒤집어엎은 혁명가의 모습을 하고 다가오는 권력은 그 위험성을 쉽사리 알기 어렵다. 그래서 더욱 위험하다. 위험성을 알아채고 대항하기는커녕 대중들은 그 권력에 순순히 협조한다. 심지어 그 권력의 위선에 호의를 보이기까지 한다. 마치 서서히 끓는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위험 속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소설의 끝에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동물 농장의 제일 중요한 규칙은 권력을 잡고 있던 나폴레옹의 수하들에 의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로 왜곡되어 버린다. 우리는 “모든 이들은 평등하다.”고 외치면서 접근하는 위선적인 권력을 경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언제든 위선적인 권력이 나타나면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권력이 위선을 벗어던지고 “사실 몇몇은 더 평등하다.”고 선언할 것

이기 예].

<제6회 CNU 리드미 Readme Lead 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우수상)>

도서명	동물농장
저자	조지 오웰
제목	<동물농장>이 리드하는 것
고전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그 명성에 맞게 수많은 대학 권장도서 목록에 자리 잡고 있으며 책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제목은 익히 들어본 자들이 많을 것이다. 책의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고전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싶다. 필자는 예전부터 고전이라는 것에 왜인지 모를 반항심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고전은 정치철학의 흐름을 담고 있고 그렇기에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교양 수업을 듣게 되면서 재정립할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 자료로 제시되었던 <왜 고전을 읽는가.>라는 책에서 작가는 ‘고전이란 고대 전통 사회의 부적처럼 우주 전체를 드러내는 모든 책에 붙이는 이름’이라고 말하며 ‘고전은 이전에 행해졌던 해석의 그림자와 함께 다시 찾아와 과거의 혼적들을 우리의 눈앞으로 끌어올 수 있는, 아무튼 읽지 않는 것보다 읽는 것이 나은 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작가의 이러한 견해를 들은 후 고전은 먼지에 쌓여 보이지 않는 과거의 무언가를 드러나게 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고 고전은 까다로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거둘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고전 <동물농장> 또한 과거의 혼적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눈앞에 가져다주는 힘이 있으며 미래의 누군가에도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인데 과연 어떤 시간의 상자를 열어주는지 책의 본격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며 하겠다.	
소설 <동물농장>은 농장의 주인이 잠든 밤, 늙은 돼지 메이저의 연설을 듣기 위해 동물들이 뒷간에 모이면서 시작한다. 메이저는 동물들이 만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인간이라는 적을 몰아내야 한다는 연설을 했다. 이러한 말을 남기고 메이저가 세상을 뜨자마자 스노볼, 나폴레옹, 스컬러라는 3마리의 돼지는 그의 교훈을 하나의 완전한 사상으로 다듬어 ‘동물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른 동물들과 함께 농장에서 인간을 몰아내는 반란을 성공한다. 반란을 달성한 이후 동물들은 서로 배려하며 일을 하지만 풍차 건설을 두고 스노볼과 나폴레옹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나폴레옹은 스노볼을 농장에서 밀어내고 농장 전체를 군림한다. 인간이 농장을 되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용하여 반란의 기초였던 동물주의 사상마저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면서 나중에는 인간과 함께 술을 마시고 카드게임을 하는 등 초심을 잊은 돼지들이 인간의 모습을 닮은 채로 소설이 끝난다.	
소설의 대략적 줄거리를 짚어보았으니 본격적으로 <동물농장>이 피력하는 시간의 혼적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소설 <동물농장>은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이라는 과거	

를 상기시켜준다. 동물들의 반란에 의해 농장에서 쫓겨나는 인간 존스는 민중 시위에 의해 폐위된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를, 동물들의 반란 이후 주도권을 쥔 돼지 나폴레옹과 스노볼은 무너진 군주제를 대신해 소비에트 연방을 건립한 스탈린과 레닌을 연상하게 한다. 소설 속에서 나폴레옹이 스노볼을 농장에서 축출하고 독재를 시작하는 모습 또한 소비에트 연방의 지도 세력인 스탈린과 레닌 간의 반목이 스탈린의 독재정권으로 변모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소설 <동물농장>은 소비에트 연방의 사회주의 이념이 인간의 권력욕으로 변태되었던 역사의 상자를 얹으로 써 현재의 정치 현장에는 이념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자가 없는지, 사회주의 이념이 독재 정치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지 독자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리드하고 있다.

이번에는 소설 <동물농장>이 내보이는 현재는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소설이 소비에트 연방의 독재정치를 풍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쉽게 드러나다 보니 책의 주제가 반공산주의, 반사회주의를 부르짖고 있다고 판단하여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때 소설 출판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모습이 매우 모순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평등의 이념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도 독재는 분명히 숨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독재정치를 반추해보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겸열을 받아야만 했는가. 이러한 선례를 보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반대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어떠한 종류의 이념을 내세워 국가를 건설하든지 간에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건국이념이라는 것은 그저 입 밖으로 내뱉으면 흘어져 부서지는 공기에 불과하다. 이렇듯 <동물농장>은 이념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힘을 보여줌으로써 자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벼운 자유의 약속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리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전 <동물농장>이 열고자 하는 미래 상자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필자는 소설을 읽으면서 나폴레옹을 비롯한 돼지 권력집단 또한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더욱 영악하다고 느껴진 캐릭터는 스컬러다. 스컬러는 농장의 동물들이 나폴레옹의 정치에 대해 의문의 소리를 낼 때마다 등장하여 그 소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하루는 복서가 영문도 모른 채 트럭에 실려 도살장에 끌려가는 상황을 다른 동물들이 마주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불안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스컬러가 등장하여 복서가 숨을 거두는 순간이 감동적이었다고 포장한다. 이외에도 돼지 독재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다른 동물들을 꾀는 등 여론을 조작하려는 언론의 모습을 충실히 보여주었다. 교묘하게 사실을 은폐하는 스컬러의 모습은 갑작스러운 돌풍보다 촘촘하기에 진실이 드러났을 때 더욱 불쾌하다. 그래서인지 그 치밀함에 소설을 읽는 내내 기분이 나빴던 것 같다.

독재 정권이 자리 잡지 않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혹여나 자리 잡는다면 지난

시대의 물리적 억압보다는 피지배자들이 알지 못하는 교묘하고 내밀한 방식으로 발달할 것이다. 조지 오웰은 자신의 또 다른 소설인 <1984>에서 ‘빅브라더’라는 존재를 언급하며 고도로 발달한 억압체제를 한 번 더 경고한 적이 있다. 3차 세계대전이 또 다시 발생할지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탄생할지는 그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이 없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우둔해진 사람들을 선동하고 지배하려고 들 것이다. 그리고 소설 <동물농장>은 세균 같은 독재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잔인함을 묘사함으로써 미래의 사람들은 백신을 맞아 이를 잘 예방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동물농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돼지들이 인간과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던 도중 창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이 인간과 구분되지 않음을 깨닫는 장면을 뽑고 싶다. 돼지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동물주의’로 정립하고 그와 동시에 일곱 계명을 발표했다. 일곱 개의 계명 중에는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는 안 된다는 조항과 인간의 흔적이 묻어있는 문명은 익히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돼지들은 타 동물과 달리 지능적인 일을 하는 입장이라며 몰래 계명을 조금씩 어겼고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무렇지 않아진 나중에는 ‘모든 동물들이 평등하다’는 계명을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로 바꾸었다. 잔인한 점은 다른 동물들은 서로의 약속이 바뀌어 가는지도 모른채 일만 하다 계명이 바뀐 것을 어쩌다 알게 되는 것이다. 돼지들이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닮아버리기도 했지만 일만 하는 동물들 또한 언제 우둔한 인간의 모습을 닮아버릴지 모른다. 어쩌면 자신이 미련한 인간을 닮아버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일만 계속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좋은 부품들로 장인이 정성들여 시계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시계는 언젠가는 고장이 난다. 수많은 태엽이 맞물리고 있는 시계와 같은 우리 사회 또한 그러하다. 사회의 정상작동을 위한 법, 공공기관, 정부, 그리고 개인까지 모두 열심히 작동하다 보면 분명 빼걱대는 순간이 온다. 그렇기에 고장이 나 시간을 읽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형량을 조절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지 꾸준한 시선을 보내야 한다. 소설 <동물농장>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도 이와 같다. 독재정치의 위험성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의 각 부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전 독후감 공모전의 이름은 ‘리드미’이다. ‘리드’가 ‘read’로 읽힐 수도 있고 ‘lead’로 읽힐 수도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중성만으로 고전 독서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모두 입증하는 듯하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read한 이후 이 책이 우리의 시간여행을 lead해 주었듯이 다른 고전도 읽어보면서 어떤 시간의 상자를 열 수 있도록 lead해주고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간다면 고전은 단순한 명작에 무턱대고 불이는 이름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6회 CNU 리드미 Readme 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우수상)>

도서명	총, 균, 쇠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
제목	모든 것은 우연이었다.

『총, 균, 쇠』는 얄리의 질문,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쇠, 의약품, 배 등)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에서 시작한다. 저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약 30개에 달하는 사례를 들어 내용을 전개한다. 그리고 그 답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연’이다. 즉 대륙마다, 나라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 속도에 차이가 난 원인은 지역의 ‘환경’에 달려 있을 뿐, 다른 원인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이 책을 깊게 파보고자 한다. 먼저 책의 제목인 ‘총, 균, 쇠’는 무엇을 의미할까? 총, 균, 쇠는 각각 무기, 병균, 금속을 지칭하며, 이들은 문명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인류의 운명을 바꾼 요인이다. 어떻게 총, 균, 쇠는 문명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 어떻게 유럽 대륙은 총, 균, 쇠를 통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식량 생산’에 있다.

식량 생산은 총, 균, 쇠가 발전하기 위한 선형 조건이었다. 농경과 목축을 일찍부터 도입해 식량을 생산했던 국가는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를 통해 여러 병균(균)에 면역력을 갖췄고, 인구 밀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좋은 무기와 금속(총과 쇠)까지 얻었다. 이를 통해 문자, 정치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렵과 채집으로 삶을 영위했던 국가들은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량 생산을 시작한 국가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측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유럽 대륙이 다른 대륙으로 진출했을 때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왜 군이 유라시아 대륙인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순전한 ‘우연’이며, 다른 대륙보다 발전에 유리한 ‘환경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만약 아프리카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의 위치에 있었다면 인류의 운명과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식량 생산과 관련된 예는 피사로(유럽 대륙, 스페인)와 아타우알파(아메리카 대륙)의 충돌에서 볼 수 있다. 스페인인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참패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총, 균, 쇠에 있다. 스페인은 식량 생산을 통해 여러 병원균에 노출되며 각종 질병에 면역력을 길렀고, 우수한 총과 무기를 가졌다. 그러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식량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에 대항하는 면역력

도 없었고, 총과 무기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사로와의 충돌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저자는 『총, 군, 쇠』를 저술하는 내내 단 한 가지만 말한다. 각 대륙의 운명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환경과 식량 생산, 여기서 비롯된 총, 군, 쇠이며, 식량 생산 시기의 차이는 인종과 사람들의 지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지역의 환경에 달린 것임을 말한다.

그렇다면 저자는 이 책에서 한 가지 내용만 반복하며 전달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중에서 내가 느낀 몇 가지만 꼽아보면 인종주의 타파, 제3세계에 대한 존중과 관심, 그리고 인간의 객체화이다. 먼저 인종주의 타파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륙마다, 국가마다 발전 속도에 차이가 생긴 것은 그 지역의 환경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한다. 즉 백인종의 지능이 더 높아서 가장 먼저 발전을 일궈내고 황인종과 흑인종의 지능이 더 낮아서 유럽 대륙보다 늦은 발전을 일궈냈다는 것이 아니기에 인종 간 우열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다음은 제3세계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인종주의 타파와 관련되어 있다. 제3세계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을 말한다. 제3세계가 제3세계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발전에 불리한 환경을 가졌기 때문이고 선진국이 선진국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국가가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고 해서 아직 발전하지 못한 다른 국가들을 무시하고 차별하지 말고, 서로 교류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마지막은 인간의 객체화이다. 우리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환경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조종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은 주체적인 인간보다 객체적인 인간을 말한다. 즉 인간은 주어진 자리, 환경, 기후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이러한 요소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객체적으로 살아갈 뿐, 환경을 극복하며 주체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황당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계절에 맞춰서, 지역의 지리적 요건에 따라 모두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정반대의 삶을 살지 않는다. 이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환경을 ‘주도’ 하여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순응’ 하며 객체적으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생각에 동의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대륙마다, 국가마다, 민족마다 발전 속도에 차이가 생긴 것은 환경의 영향이 분명히 있으며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말 환경이 전부인가? 다른 원인은 없는가?’를 생각한다면 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저자는 이 책을 전개하면서 지능의 차이, 생리학적 차이(근면성, 창의성 등)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환경만큼이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만약 저자의 생각처럼 우리의 삶이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정해진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창의성과 노력을 더하여 새로운 것이나 더 진보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단편적인 예시로 비닐/유리/온실 하우스 농업을 들 수 있다. 만약 주어진 환경에 순응해 살아간다면 우리 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음식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하지 않고 하우스를 만든다. 우리 지역에서 자라기 힘든 과일과 채소를 기르기 위해 그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기르고 재배한다. 이를 본다면 저자의 주장에 조금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총, 군, 쇠』를 읽은 후 든 생각은 ‘압도당했다.’이다. 『총, 군, 쇠』는 나름의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제 껏 아무런 의문 없이 당연하게 여긴, ‘유럽 대륙은 부유하고 아프리카 대륙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에 “왜?”라는 의문을 던졌고 이 책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가졌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조금은 새로운 관점에서 세계를 다시 바라보았고, 교만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였다. 나는 이 책을 인류학과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 세계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제6회 CNU 리드미 Readme Lead 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장려상)>

도서명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제목	내가 사랑하는 고전, 사피엔스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류는 어떻게 모든 동물 위에 군림하게 된 것일까? 지구의 여러 생물 중 하나이던 인류는 어떻게 지구의 주인이 된 것일까? ‘사피엔스’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인류를 총체적으로 다룬 인문학 책으로 호모 사피엔스 발달 역사를 흥미로운 방식으로 풀어낸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저자는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이유 첫 번째로 인지혁명, 두 번째로 농업혁명, 세 번째로 과학혁명을 꼽는다. 이 세 가지 혁명은 인간이 낯선 사람들끼리 공감과 협력을 가능하게하고 향상된 생산과 노동력으로 기술과 문화 발달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끝으로 지구를 지배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했다. 사피엔스는 오늘날, 자신들의 터전인 지구조차 파괴하는 신의 영역에 접근하게 되었으며 유발 하라리는 이러한 인류 종을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지 않고 ‘호모 데우스’라고 칭한다.	

이 책은 인류에 관한 깊고 넓은 사유를 통해 얻은 통찰이 돋보이는 명작이다. 저자 유발 하라리의 인류 역사를 해석하는 독특한 시각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먼저, 인류의 첫 번째 혁명을 ‘인지 혁명’이라고 인식한 것부터 상당히 인상 깊다. 일반적으로 인류가 급격하게 발전한 첫 번째 이유를 농업 혁명이라고 꼽는 수많은 저서들과 달리, 추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 것을 가장 첫 번째 혁명으로 꼽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재미있다. 다른 동물들보다 인류가 지구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로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뇌의 발달과 사고하는 능력을 꼽을 것이다. 나도 이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왜, 어떻게 발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생각은 깊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사피엔스의 ‘인지 혁명’ 분야를 읽으면서 조금은 구체화하였다. 여러 다른 동물들도 사고하고 포식자로부터의 위험을 공유하며 생존을 도모하는데 인간만이 생각하는 능력이 크게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넓은 집단에서의 사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에서 추상적 사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뒷담화’라고 제시하는데 실제로 많은 유인원이 다른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고 서로에 대해 상상하면서 사고하는 방식을 발달시켰을 거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인간이 선천적으로 넓게 사고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더 넓은 사회를 구성하게 되었는지, 더 넓은 사회에 살게 된 이후 넓게 사고하는 능력이 생긴건지에 대한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유발 하라리 역시 더 넓게 사고하는 능력의 기원을 돌연변이 유전자에서 찾아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더불어

다원의 진화론은 아직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데, 다원의 진화론에 기대어 인간의 진화를 설명했다는 점도 한계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인간의 진화에서 ‘추상적인 것에 대한 인지와 그것의 공유’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그에 대해 고민했다는 점은 색다른 시각으로서 매우 인상적이다.

두 번째로, 인간의 큰 혁명 중에 하나로 꼽히는 농업혁명에 대해 ‘사기’라고 칭하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 매우 신선했다. 통념으로서 농업은 인류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인류의 다른 요소들을 발전시킨 ‘혁명’이다. 나 역시도 농업과 정착 생활을 함으로써 인류가 생각하는 능력을 더욱 기를 수 있었고 더욱 번창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더욱 반대로 생각해 농업과 기술의 발달이 사피엔스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견해가 색다르게 와 닿았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여러 편리한 기술 속에 사는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행복하지는 않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 속에서 공허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풍요를 갈망하게 되고, 그러한 갈망이 더 많은 문화 발전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어쩌면 농업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여러 불행을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물질적 풍요로 인해 인류의 문화가 발전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저자도 그러한 맥락에서 농업을 혁명이라 칭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서도 반박될 수 있는 점은, 만약 농업이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이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농업이라는 기술이 결코 유지되었을까’라는 것이다. 농업의 유지가 늘어난 인구와 부양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정말 인류에게 해가 되는 불편한 기술이었다면 한, 두 세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수 세대를 거쳐오면서 사라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인구 부양력으로 인한 필연적인 농업’의 뜻 자체가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 식량이 항상 부족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잉여 식량과 잉여 노동력이 남을 수 없었을 것이며 동시에 문화의 발전도 저조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농업이 인류를 불행하게 했다’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제국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소개한 점이 독특했다. 제국주의 시대 때, 제국은 소수의 문화를 약탈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주입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즉, 문화의 다양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국주의는 비인간적이고 불평등하며 힘의 논리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무식한 이미지를 지녔다. 그러나 유발 하라리는 이러한 제국주의 정책이 인류가 강국의 문화를 확산시키면서 전 지구적인 연대감과 보편성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옛 서양 열강들을 비롯한 제국의 침략과 확산이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도움이 됐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나는 저자가 과거 제국주의의 비인륜적 부분을 추켜세웠다기보다 제국주

의의 부정적 면에 가려진 궁정적 측면을 소개한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저자는 서로의 사상적 깨달음에 의한 자의와 경제적 무역 관계 등 필요에 의한 지구촌적인 인류애를 주창했다.

마지막으로, 과학혁명에 대해 나는 저자와 생각이 동일하다. 최근 인류는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지구를 이해하고, 이용하며, 지배한다. 그러한 발전에 따라오는 새로운 책임들과 문제점들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우려를 못 이겨 과학의 발전을 막아내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과 같다. 새로운 책임은 우리의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함께 지면되는 것이고, 언제나 그랬듯이 문제에 대해 인류는 또 다른 해답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인류 ‘호모 사피엔스, 혹은 호모 데우스’ 이니까.

책 ‘사피엔스’는 인류의 역사에 대해 총체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었고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언제나 다른 관점에서 빼딱하게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기 때문에 내 고전 목록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읽는 동안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해준 점, 주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참신하고 흥미로웠던 점,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나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었던 점을 들어 책 ‘사피엔스’는 나의 소중한 고전이다.

<제6회 CNU 리드미 Readme Lead 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장려상)>

도서명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제목	신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토끼를 본다면 하이에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토끼를 사냥한 후 그 영역의 주인 자리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그 자리의 주인이 영원히 하이에나일 수 있을까? 사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하이에나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단편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강하고 우월한 존재들이 경쟁과 생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지구의 주인으로 여겨지는 인간, 즉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해서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 사피엔스의 생존과 진화 과정에 대한 견해들은 사람들마다 다양할 것이다. 그중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이 책을 통해서 인류가 크게 3가지 혁명을 통해 지금과 같은 상태를 이뤘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현재는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지만, 더 우월한 존재가 나타난다면 주인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리를 빼앗긴다면, 무용지물이 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주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미래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우선 사피엔스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3가지 혁명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유발 하라리는 3가지 혁명을 인지 혁명, 농업혁명, 그리고 과학혁명이라고 말한다. 먼저 인지 혁명은 인간이 상상을 믿는 유일한 동물이고, 이는 인간을 협력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3부의 인류 통합과도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인류를 통합한 방법은 돈과 제국, 그리고 종교인데 이들은 모두 실제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즉, 허구의 것을 믿을 수 있는 인간이 상상의 질서를 통해서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농업혁명은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농업혁명이 인류의 대재앙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농업혁명은 인류의 생활을 이동생활에서 정착생활로 바꿨고, 이로 인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가 제한되어 영양 불균형을 가져오고, 전염병이 확산된다. 물론 크게 보면 농업혁명은 인간의 문화가 발달하는 데 필수적이고,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인간 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농업혁명으로 인해 자기 소유의 재산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는 등 개인의 행복을 빼앗았다는 유발 하라리의 견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은 과학혁명이다. 저자는 과학혁명이 무지의 혁명이라고 말하는 데 나는 이

에 매우 동의하는 바이다. 나는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지에 대해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는 인류의 발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류는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했고, 그래서 과학혁명을 이끌어냈고, 지금 과학으로 중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호모 사피엔스는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는 중이라고 말한다. 과학을 통해서 자연선택의 법칙을 깨기 시작했고, 이를 지적 설계의 법칙으로 대체한다. 또한 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죽음’을 기술적인 문제로 재정의한다. 이를 통해 인간은 신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을까? 지금처럼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해간다면 결국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유발 하라리 또한 더 이상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호모 데우스’이며, 인간은 신을 꿈꾼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이에 대해 궁정적인 방향으로만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학이 우리를 원하는 쪽으로만 데려가지 않을뿐더러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한다. 유발 하라리의 내한 강연 ‘인간은 과연 쓸모 없어지는가’를 보면, 그는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수십억 명에 달하는 무용지물이 될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누군가는 인간은 기계와 달리 감정이 있기 때문에 차별성을 지니고, 예술이라는 영역이 남아있다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감정은 인간이 지닌 영적인 현상이 아닌 신체의 생화학적 과정의 결과이고, 따라서 인공지능 자체에 감정이 없더라도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물학 연구는 행복을 명확히 정의하거나 측정하지 못했고, 쾌락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인정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자유와 행복의 추구는 생명과 쾌락의 추구로 번역되고,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행복까지 학습할 수 있다는 것에 나는 동의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인가? 유기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공지능이 더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인공지능의 개발을 멈추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려하던 문제에 직면한다면 새로운 해결책들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다만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정답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과 고민은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그 혜택은 무한할 것이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인류의 멸종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 –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서문 ‘한국의 독자들에게’ 中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고, 우리의 종말에 대해 아직 결정 내리지 않았다. 책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배웠고, 사피엔스가 어떻게 생존해왔는지, 어떤 선택이 성공했고 실패했는지 알게 되었다. 이 모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더 다양한 견해를 배울 수 있었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미래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

들에 대한 해답을 모르고, 이러한 무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이는 곧 과학혁명과 같은 또 다른 혁명으로 이어져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이끌지도 모른다. 과학혁명이 인류를 신의 영역에 더 다가가도록 만들었다면, 새로운 혁명을 우리를 신에게 도달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신을 꿈꾸던 인간이, 결국엔 신과 동일시된다면 그때도 여전히 지구의 주인일 수 있을까. 신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제6회 CNU 리드미 Readme Lead 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장려상)>

도서명	동물농장
저자	조지오웰
제목	기억과 기록의 조작

영화 터미네이터2의 마지막 장면, 엄지를 들고 용광로로 들어가는 그 장면의 대사를 아는가? ‘I’ll be back’ 을 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Goodbye’ 였다. 그렇다면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스케치북 장면에서는 어떤 음악이 흐르는지 아는가? ‘All You Need Is Love’ 는 전혀 아니다. 이처럼 인간의 기억은 쉽게 조작되고 퇴색된다.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만큼 쉽게.

‘동물농장’은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켜 인간을 내쫓고 동물만의 농장, 동물농장을 세운다는 내용으로 독재와 사회주의의 문제를 풍자한 소설이다. 특히 인간의 언어를 깨친 돼지들을 필두로 하였는데, 그들은 평등을 기반으로 한 7가지 계명을 만들어 벽 한쪽에 써두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동물들을 위해서 7계명을 요약한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라는 구호도 만들어 전파한다. 하지만 돼지들이 더욱 특권을 누리게 되면서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는 기록은 조작되고 기억은 퇴색되어 간다.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보다 평등하다.’ 나는 기억과 기록의 조작은 이야기 속 동물농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아니면 독재 혹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생각해 봤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기억과 기록의 조작은 충분히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펴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이제 빈번한 일이 되었지만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단순 기록 조작이지만 이미 누군가의 기억은 조작되었다. 4년 전 일이지만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것이 생각난다. 한 살 어린 유카의 집에서 흠풀스테이를 했고, 집에는 유카보다 두 살이 많은 오빠도 있었다. 흠풀스테이를 하러 가기 전 역사적, 정치적 이야기는 되도록 자제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가 일본 교과서를 보여주어 이야기를 피해갈 수 없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인데 너희도 이런 걸 배우니?” 영어로 그가 물었고 나는 교과서를 구경하기 바빴다. 일본어로 적힌 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이미지 자료로 어떤 것을 배우는지 대충 알 수 있었다. 그 교과서에서는 아마 독도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배운다는 말은 들을 수 있었다. 다행히도 그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일본 학생들이 그런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조지 오웰은 다른 작품 ‘1984’에서 기억과 기록의 조작을 통한 과거의 통제가 결국 현재와 미래 장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마치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라는 구호에서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 좋다!’라는 구호로 바뀌고 돼지들이 회초리를 들고 두 다리로 걷지만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은 선대의 역사적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어린이들이 보는 방위백서, 학생들의 교과서에 왜곡된 역사를 심는다면 우리의 기억은 점점 사라질지도 모른다.

또 다른 기억과 기록의 조작으로는 동북공정이 있다. 동북공정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고 있고 지난해 말부터는 문화공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제일 큰 논란은 ‘김치’인데, 절임 채소 ‘파오차이’를 내세우며 자신들이 김치의 종주국임을 주장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김치를 직접 담그는 사진을 SNS에 올렸고, 중국의 유명 유튜버는 김치로 요리하는 영상을 올리며 김치를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미 2001년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한국 고유의 식품으로 국제 규격을 인증받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에는 파오차이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기록의 좋은 예시인 것 같다.

독재자 나폴레옹과 그를 따르는 돼지 무리는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으로 동물들의 기억을 조작하며 자신들을 정당화했다. 기억과 기록의 조작을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과거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기록이 독재자를 혹은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화 형식을 빌린 정치 풍자 소설이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을 읽고 정치적인 것에 떠나 어느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기억과 기록의 조작’에 관한 부조리가 떠올랐다. 책에서는 시간이 흘러 농장에서 인간을 몰아내고,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던 처음 7계명을 함께한 동물들은 늙어가고 나폴레옹에 의해 사라졌고 그렇게 독재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만약 나폴레옹이 스노볼을 쫓아냈을 때, 스켈러가 입에 빨린 소리를 할 때, 계명들이 점점 바뀔 때 등 동물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 반발했다면 나폴레옹과 돼지들의 독재를 멈출 힘이 되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기억과 기록을 주제로 한 영화 메멘토도 떠올랐다. “기억은 방의 구조를 바꿀 수 있고, 차의 색깔도 바꿀 수 있어. 그리고 기억은 왜곡될 수 있지.” 이 영화에서도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지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해야 한다. ‘정확성’, ‘보존’, ‘전달’을 기반으로 한 기록 말이다. 그래야 조작에 잡식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억과 기록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동물농장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제6회 CNU 리드미 Readme Lead 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장려상)>

도서명	동물농장
저자	조지 오웰
제목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관점에서 본 동물농장
“어떻게 이성은 전체주의와 파시즘으로 변질되는가?” 동물농장은 이 질문에 실제적인 해답을 보여 준다.	
<p>1940년대 유럽은 전체주의와 파시즘이 넓게 퍼졌다. 동물농장은 당시 파시즘으로 치닫던 소련을 비판하기 위해 집필되었으나 출판사에 의해 거절당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비로소 출간될 수 있었다. 동물농장은 전체주의와 파시즘을 우화 형식을 빌려 비판하고 있는데, 동시대 독일 철학을 주도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 보다 명징한 이해가 가능하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독일의 현대사상을 견인해 온 집단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중심으로 파시즘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되었다.</p> <p>그중 테오도어 아도르노와 막스 호르크하이머는 ‘왜 인류는 인간적 상태보다 일종의 야만 상태로 빠지나’에 의문을 품었다. 작 중에서 혁명의 시작은 메이저 영감의 꿈과 농장주 존스의 착취가 원인이었는데, 동물들은 혁명 이후 짧은 평화기를 거쳐 나폴레옹 주도로 우상화와 폭력적 정치가 다시 나타났다. 이것은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과 일치하는데 ‘신화, 폭력’ → ‘계몽’ → ‘신화, 폭력’의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메이저 영감의 꿈과 나폴레옹의 우상화는 신화에 해당하고 존스의 착취와 나폴레옹의 폭력적인 정치는 폭력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소설의 전개도 동일한 양상으로 흘러간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파시즘을 ‘민족주의적 편집증’이라 표현하였는데 합리적이어야 할 계몽이 이처럼 광기에 빠지게 된 것은 동물들을 풍차 제작으로 대표되는 외부 목표를 통해 자발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구성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권력자들은 내부 결속을 위해 외부에 표적을 두고 구성원들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게 하였다.</p> <p>동물농장의 혁명 이후 나폴레옹의 통치 과정은 발터 베냐민의 폭력론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그는 ‘법’ 안에 ‘폭력’이 잠재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베냐민의 폭력론에 따르면 폭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법 정립적 폭력’과 ‘법 보존적 폭력’이다. 이 둘은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나타난다. ‘법 정립적 폭력’은 폭력을 통해 기존 체제를 전복시켜 새로운 법을 설정하는 것인데 이는 혁명에 필수적 요소이다. 혁명 이후 동물들은 존스 시대의 규칙이 아닌 자신들만의 새로운 ‘7계명’을 탄생시킴으로 ‘법 정립적 폭력’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그러나 법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하게 구현해야 하는 ‘법 보존적 폭력’의 과정에서 실패하게 되는데, 글을 읽을 줄 아는 동물이 없어 지속적으로 7계명이 수정되었지만 알아차리지 못했고, 글을 읽을 줄 아는 벤저민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p>	

않았다. 이는 대중이 정치에 관심이 없을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나폴레옹의 통치는 공권력으로 표현되는 개들을 마음대로 부리며 동물들을 위협하는 형태로 변질되는데, 그는 대척점에 있는 모든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강압적으로 주입하며 부패의 길로 빠져든다. 법 보존을 위한 공권력이 권력을 위해 복무할 때 얼마나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 알 수 있다.

결국 동물들은 혁명을 통해 자유를 얻었음에도 다시 나폴레옹에게 지배 당했는데, 이에 대해 에리히 프롬은 ‘근대인은 왜 자유로부터 도피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대중들은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 파시즘 혹은 전체주의에 매몰되는 ‘희생양’이 아니라, 실제로는 대중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파시즘, 전체주의로 전환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적 성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파시즘 특유의 사회적 성격은 ‘권위주의적’으로 대표된다. 여기서 프롬은 파시즘의 권위주의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독일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근대성에 주목하였는데, 그 유명한 프롬의 ‘자유’ 개념이 등장한다. 프롬은 자유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로부터의 자유”와 “~로의 자유”이다. 전자의 경우 부정적인 자유인 반면 후자는 긍정적인 의미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근대인들은 “중세 사회의 전통적 유대로부터의 자유”는 획득했지만 동시에 “개인에게 고독과 고립”의 감정을 불러왔다. 이를 작 중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동물들은 혁명을 통해 “존스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자유가 이들에게 주어지면서 그들에게 고독, 고립, 공허가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파시즘이고 전체주의였다. 결국 “존스로부터의 자유”는 얻었지만 이는 부정적인 자유일 뿐, “차별과 노동으로의 자유”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등장해 이들을 권위주의적으로 지휘하면서 동물들은 혁명 이전보다 못한 상황으로 돌아갔다. 끝내 7계명의 내용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라는 차별적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동물농장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잠자는 대중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대중이 깨어있지 않고 권력의 프로파간다에 휘둘릴 때 비극은 현실화된다. 글을 읽을 줄 아는 벤저민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시니컬한 지식층을, 복서는 권력자들에게 선동당하는 대중을 상징하는데, 나폴레옹은 동물들이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법, 7계명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정했다. 벤저민은 이런 속셈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심이 없다는 듯이 방관하기만 했는데 결과적으로 돼지들의 부패한 정치만 남게 되었다. ‘대중’이 날선 감각의 ‘시민’이 되지 않는다면 권력의 선동에 대중은 부유하는 존재가 될 뿐이다.

두 번째는 ‘자유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가 일상화되어 있는 국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자유에는 막대한 책임이 있으며, 부정적으로 변질될 경우 주권을 잃을 수도 있다. 인간 내면에는 강자에 기대 편승하려는 성

향이 있어서, 이를 거슬러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 타인에게 억압받지 않고 오롯이 나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복서는 나폴레옹의 통치 과정에서 의문은 품지만 반론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결국 ‘존스’로부터는 자유했지만 다시 ‘나폴레옹’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맞았다.

이성적 사고를 하는 인간이 왜 파시즘과 전체주의에 빠져드는지 의문을 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데마고기’와 ‘프로파간다’에 취약한 사회적 동물인지 실감할 수 있었고, 이성이 얼마나 쉽게 폭력으로 변질되어 가는지 절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열어야 하기에 ‘벼려진 날선 감각의 시민’으로 있는 길만이 이성이 전체주의와 파시즘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제6회 CNU 리드미 Readme Lead 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장려상)>

도서명	동물 농장
저자	조지 오웰
제목	권력을 위한 권력, 무지에 대한 무지
<p>모두가 평등하고 노력하면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 나는 현재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모두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노예이며, 누군가는 여전히 특별한 이들만을 위해 일을 한다. 누군가는 부당한 취급에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는다. 심지어 우리조차도 불과 몇십 년 전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우연히 뉴스 기사를 보고 나는 이런 사회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졌다. 그때,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비판한 이 책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나폴레옹과 스노볼이라는 다른 속성을 가진 권력자의 대결 구도를 펼치다가 나폴레옹이 자신의 친위대를 바탕으로 스노볼을 쫓아내고 일약 독재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왜 권력자는 권력을 줘면 바뀌는가?’ , ‘군중은 왜 똑똑하기 어려운가?’에 대하여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며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p> <p>우선, 이 책에서는 2가지의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첫 번째로는 독재자 돼지인 나폴레옹의 이름이다. 우리가 아는 역사 속 인물인 나폴레옹은 흔히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전 유럽에 전파한 혁명적인 정치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제적 독재체제의 보나파르티즘이라는 말도 있는 등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책 속의 나폴레옹은 겉으로는 봉기를 성공적으로 이끈 지도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뜻에 반하는 이들을 죽이거나 법을 고치는 등 독재자의 면모를 명확히 보인다. 또한, 실제 역사 속 나폴레옹은 자신의 권력을 쌓아 처음에는 대통령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황제로 즉위하는데, 책 속 나폴레옹도 처음에는 권력과 지지기반을 만든 다음 대통령이 되고, 그 뒤에는 농장 안팎으로 쉽게 건들지 못하는 권력자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작가는 역사 속 나폴레옹의 평가에서 책 속 나폴레옹의 캐릭터를 투영하여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부분은 ‘풍차’에 관한 것이다. 나는 이 풍차가 독재자의 ‘미끼’라고 생각한다. 먼저 풍차에 관심 없던 나폴레옹이 갑자기 풍차 만들기를 지시하며 이를 건설하면 부유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 다른 동물들은 이에 대해 풍차가 줄 미래를 상상하며 순종적으로 따를 뿐이다. 처음에 군중들은 희망에 차서 풍차를 열심히 만들었지만 후에는 풍차의 이점과 상관없이 그저 풍차 만들기 자체에만 매몰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풍차가 완성된 후에는 그것을 군중의 편리한 삶을 위한 발전용으로 쓰지 않고 그저 부를 증대시켜줄 곡식을 빼는 용도로만 사용하는데 이는 그들이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저 풍차를 완성하는 것에만 집착하며 제대로 사고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즉, 나폴레옹은 자신이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 대중이 반발하</p>	

거나 자신을 감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중들이 생산적인 생각을 하거나 자신들의 삶을 못 돌보도록 하고, 풍차를 내세워 무지각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미끼로 사용한 것이다. 나폴레옹의 태도를 보아도, 풍차가 무너졌을 때, 좀처럼 나온 적 없는 그가 누구보다 급히 나와 무너진 풍차로 달려가는데 이는 자신의 업적이자 미끼가 사라져 모든 원망이 자신에게 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스노볼의 탓으로 돌려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그를 원망하게 하고 다시 풍차 건설을 종용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흐려 버린다. 따라서, 그를 아무도 제지할 수 없었던 것은 대중이 무지한 탓도 있었지만, 그가 풍차 건설이라는 과업을 내세워 대중의 시선을 돌렸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있다. 후반부에 나폴레옹이 동물 농장을 다시 ‘메이너 농장’으로 바꾸는 장면이다.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일삼던 ‘독재자 존스’를 쫓아내고 그들이 어렵게 얻어낸 ‘동물들의 농장’의 결과가 희망찬 미래가 아닌 존스와 비슷한 또 다른 ‘독재자 나폴레옹’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거시적으로 와닿는 대목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또한, 모두가 평등한 사회, 노력해서 얻는 소소한 행복과 여기에 따르는 사회 전체의 번영이라는 명제들로 포장해도 군중을 지배하는 절대적 권력의 독재자가 있는 한 미래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작가가 비판하고 싶었던 것들의 실상이 직접적으로 느껴져서 인상 깊었다. 나는 앞서, 이 책을 읽는 내내 들었던 두 가지의 의문에 대해 언급했었다. 여기에 대해 답하자면, 첫 번째 물음에 관해서는 ‘권력이 권력을 낳는다’는 말처럼, 권력을 얻은 대부분의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잃고 싶지 않아 하며 오히려 더 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이 원래 가졌던 생각과 도덕 체계를 바꾸기에 충분하다. 또한, 그들은 이미 일정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쉽다. 따라서 그들은 권력을 가지면 권력 유지나 중대를 위해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우선 다양한 이유가 있다. 먼저, 똑똑한 군중은 권력자의 편에 서거나 제거되기도 하고, 바꿀 수 없는 현실에 입을 다물기도 한다. 또한, 무지한 이들은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재하고 자신이 미처 무지한지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책 속에서 지혜롭고 글을 잘 읽는 편이었던 벤야민은 자신이 아는 한,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은 없다고 하거나 불만이 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보인다. 두뇌 회전이 빠르고 똑똑한 편이었던 스노볼은 결국 어이 없는 이유로 쫓겨나고, 말을 잘하며 똑똑한 편이었던 스케일러는 나폴레옹의 최측근이 되었다. 다른 대중들은, 식량 배급을 공정하지 않게 하고, 자유도 없이 노예처럼 일만 하면서도 이 노동이 자기 자신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 착각하며 나폴레옹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모범적인 대중의 대표인 복서는, 자신의 견지에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하며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자신의 무지에 대한 무지를 보여준다. 이들은 자신이 믿는 이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사회가 왜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한다. 이렇듯, 나는 동물 농장 속 사회를 통해 독재적인 사회에서는 군중이 똑똑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를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책을 읽은 후 나는 사고의 확장 외에 ‘권력자에게 기대하기보다는 권력자를 견제할 수 있는 권력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과 ‘군중이 똑똑해져서 권력자와 권력 수단 모두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얻어낼 수 있었다. 또한, 투표나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과거의 나를 반성하며, 내가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를 충실히 하고, 정치나 사회 전반에 관심이 많아야 우리 사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권위에 무턱대고 복종하는 일은 진실의 가장 큰 적이다’라는 말이 있다. 불과 몇십 년 전, 많은 이들이 권위에 무턱대고 복종했다면, 아니 복종해야 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들의 자의적, 타의적 희생 아래 세워진 이 사회에서 옳지 못한 권위에는 도전할 줄 아는 정신, 분노할 줄 아는 판단력과 사회를 밝은 길로 이끌 좋은 생각들이 필요하다.

<제6회 CNU 리드미 Readme Lead 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장려상)>

도서명	동물농장
저자	조지 오웰
제목	동물농장 -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법

< 서론 - 선정 이유 >

이번 독후감 대회에 선정된 다섯 권의 책 중 두 권은 이미 읽어본 책이었다. 때문에 나는 안 읽은 세 권 중 한 권을 이번 기회에 읽어보기로 결정했다. 고민 끝에 고른 책은 <동물농장>이었다. <동물농장>에 가장 관심이 갔던 이유는 작가, 조지 오웰의 이름 때문이다. 나는 조지 오웰의 최후의 작품이자 가장 유명한 작품일 <1984>를 이미 읽어봤으며, 이것이 책을 고르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몇 년 전 읽어본 <1984>에 대한 나의 감상은 부정적이었다. 독재정치에 대한 섬뜩한 경고는 물론 유의미하며, 언제 읽어도 나름대로의 가치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책이 쓰여진 연도를 고려하면, 이 작품이 명성을 얻은 이유는 작품성 때문이 아니라 그 사회의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었기에 추앙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세 권의 책 중 한 권을 고르기 위해 이런저런 기초 정보들을 찾아보던 중, <동물농장> 역시 조지 오웰의 공산주의 비판물이라는 소개글을 읽었고, 주저 없이 <동물농장>을 읽어보기로 결정했다. 이 책은 나의 선입견을 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품고 첫장을 넘겼다.

< 본론 1 - 공허한 외침 -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단 세 페이지만에 나는 비명에 가까운 탄식을 내지를 수밖에 없었다. 돼지의 입을 빌려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동물을 노예로 부리며 노동력을 착취하니, 인간들을 몰아내고 우리끼리 스스로 행복하게 살자. 들으며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단호하고 화려한 언변은 절로 마르크스의 그것을 연상시켰다.

책의 서두부터 이런데 뒷내용은 말할 것도 없다. 이후로도 계속 노골적인 소재가 나열된다. 동물들은 인간들을 몰아내고 모든 동물들이 평등한 이상사회를 건설하지만, 몇 달 안 가 금방 새로운 지배계급이 나타나고 점차 동물사회는 분열된다. 시간이 흘러 혁명의 고귀한 이상은 모두 사라지고 결국 인간이 있던 시절과 다를 바 없는 비참한 현실만이 남게 된다.

책을 읽는 내내 나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풍자에 소름이 끼쳤다. 이 정도 수위의 글을 풍자 내지는 유머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20세기의 사람들에게 감탄을 느꼈을 정도였다. 암탉들이 달걀을 빼앗기고, 권력이 점차 부패해가고, 교묘한 탄압과 살인이 이뤄지는 모든 장면은 아주 얇은 막으로 덮어씌워진 비극이었다. 누구보다 농장에

현신한 말 복서가 도축장에 팔려가는 장면에선—여담으로, 복서는 내가 가장 호감을 느낀 등장동물이었다—진심으로 혐오스럽고 역겨워서 잠시 책을 덮고 쉬었다. 동물로 비유되긴 했어도 이름만 바뀐 실존인물들임이 명확한데, 그들의 죽음을 이토록 잔인하고 잔혹하게 글로서 풀어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토록 불쾌한 풍자는 결말 부분에 가서 절정에 다다른다. 감히 예상하건대 아마 이 책이 출판된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 무수히 오르내렸을 장면이리라.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 본론 2 - '반공서적'? >

<1984>가 과거와 현재, 미래에 존재할 모든 독재정권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면, <동물농장>은 그보다 범위가 좁다. 이 책은 노골적으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과 그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을 겨냥하고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비판보단 비난에 가깝다. <동물농장>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 역시 이러한 표면적인 가치에 힘입어서일 것이다. 물론, 체제안정을 위해 선동과 날조를 반복하는 독재정권에 대한 신랄한 풍자는 책을 읽는 이로 하여금 섬뜩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며, 그것이 이 책이 현재에도 계속 읽혀야 할 위대한 고전으로 꼽히기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허나 이 작품을 단순한 공산주의-독재정치에 대한 풍자물로 읽어야 할까? 책의 전개가 무척 단순한 편에 속하므로, 이 작품을 해석하려면 작품 뒤의 작가까지 해석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오웰은 젊은 시절 스페인 내전에 공화파 의용병으로 참전하여 파시스트 군사정권에 맞서싸웠던 적이 있다. 그곳에서 오웰은 모든 인간들이 서로 평등하게 살아서 희망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공화파는 배신과 내부분열로 패배하고 오웰은 목숨만을 겨우 부지한 채 프랑스로 도망친다. 이 경험, 혁명의 '희망'과 '좌절'이야말로 <동물농장>을 이해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키워드다.

조지 오웰은 변화를 부정하지 않았고, 혁명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계급을 누리길 바라는 사회주의자였다. 이 소설은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흔히 '하나를 위한 전체, 전체를 위한 하나'라는 슬로건으로 설명되는 전체주의는 그 특성상 권위주의와 독재정치로 흘러가기 쉽다. 소수가 전체라는 가면을 쓰고, 전체의 가치를 위시해, 다수에게 희생을 강요한 <동물농장>처럼 말이다.

즉 <동물농장>은 '반공서적'이라기보단,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을 해친 독재국가 소련에 대한 실망을 오웰의 방식으로 우아하고 천박하게 풀어낸 책에 가깝다. 반대로 말하자면, <동물농장>이라는 책에는 오웰의 '진정한 사회주의'를 향한 애정과 희망이 듬뿍 녹아들어있다.

< 결론 - 인식의 변화 >

책의 결말 부분까지 전부 읽고 책을 덮었을 때, 나는 나의 선입견이 완벽하게 사라졌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책이 쓰여지기까지의 과정은 나의 생각처럼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 책을 단순히 그 시대에 살았던 지식인의 얕은 푸념이라고 취급하는 것은 치열한 삶을 살아왔던 한 명의 인간에 대한 지독한 편파이고 모욕이다.

잔인한 묘사에 둘러쌓여있는, 이 작품의 가장 깊은 곳에는 비탄과 열망이 자리잡고 있다. <동물농장>은 읽는 이로 하여금 부조리한 사회상 앞에 놓인 개인으로서 한 권의 책을 펴내는 것이 고작이었던 작가의 절망과 무력함을 절절히 느끼게 한다. 그러나 눈 앞의 현실에 대한 회의감이 들더라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세상이 나아지길 바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21세기 현재에도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작가의 태도는 분명히 존경받아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모든 독자가 나와 같은 감상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물로도,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인간 본질의 악성에 대한 풍자물로도, 민중을 이끌고 권력자를 감시하는 지식인의 사명에 대한 뼈저린 충고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동물농장>에 대한 감상은 아주 작고 단순하다. 끝 없는 좌절과 악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만족하며 이만 마침표를 찍는다.